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삼설기본 <노처녀가>^{*}

- 『모든 몸은 평등하다』(2012)를 참고하여 -

이경하**

- I.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장애인의 시각을 대변하는가?
- II. <모든 몸은 평등하다>에 나타난 비장애인 중심주의
- III.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노처녀가> 분석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장애인들이 쓴 『모든 몸은 평등하다』(2012)를 참고하여, 장애인의 관점에서 19세기 텍스트인 삼설기본 <노처녀가>를 다시 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둘은 시간적 간격이 크지만, 19세기 조선과 21세기 초 한국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란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몸은 평등하다』 분석은 비장애인 중심주의에 대한 장애인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들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었다.

분석 결과,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노처녀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세운 공이 있지만, 그것은 소재주의적 접근일 뿐, 삼설기본 <노처녀가>가 장애인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었다. 즉 작품 곳곳에 비장애인 중심주의가 스며있었다. 장애인의 회화화와 소외,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 그리고 비장애인의 공감에 돌보인다는 결말부에서 오히려 비장애인 중심주의가 강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삼설기본 <노처녀가>에 흔히 부정적 시선과 긍정적 시선이 공존한다고

* 이 논문의 게재료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지원 받았음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했는데, 그 혼재된 서로 다른 시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지 집단과 개인, 타자 의식과 자아 각성, 중세와 근대 지향으로 대별하기 어렵다. 그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사는 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 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핵심어 : 삼설기본 <노처녀가>, 장애인, 비장애인 중심주의, 회화화, 능력, 공감

1.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장애인의 시각을 대변하는가?

이 글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19세기 삼설기본 <노처녀가>를 다시 보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즉 소수자다. 상징적 의미의 소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수의 반대인 소수다. 여성이나 흑인이 실제로 소수라서 소수자라 했던 것은 아니니, 장애인이 소수란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비장애인이 절대적 다수라면, 장애인은 소수다. 이런 사회가 절대적 다수를 기준으로 설계됨은 일견 자연스럽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음을 비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 이를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소수를 위한 정책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주 천천히 지금도 변하고 있다. 개선인 줄 알았는데 개악인 경우도 있고, 실적을 위한 무늬만 개선인 경우도 많다. 요컨대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데, 주로 정책을 마련하는 쪽인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실상을 잘 모르면, 선의에서¹⁾ 한 일도 비장애인 중심이 되기 쉽다.

가사 <노처녀가>는 크게 잡가본 <노처녀가>와 삼설기본 <노처녀가>로 대별된다. 논자에 따라 <노처녀가1>과 <노처녀가2>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 중 문면에서 신체적 장애가 강조된 것은 삼설기본 <노처녀가>, 즉

1)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2023 70쇄).

<노처녀가2>다. 그 둘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²⁾ 장애에 주목한 경우는 별반 없다. 당시 인기 있던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사십이 넘은 불구의 노처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스스로 배필을 찾기로 결심하고 결국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줄거리”³⁾다. 잡가본 <노처녀가>는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지도 않고 결말도 크게 다르다. 그 중간의 <노처녀가>도 있다.⁴⁾

잡가본 <노처녀가>⁵⁾와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규방가사 계열 작품이고 노처녀가 주인공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기실 공통점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노처녀의 장애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장애로 본다면, <노처녀가> 계열은 통하는 면이 있다. 18세기에 노처녀 담론이 있을 만큼, 조선 후기에 노처녀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골칫거리였으니, 노처녀란 존재를 신체적 장애에 빗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미숙의 연구는 노처녀의 신체적 장애를 ‘사회적 장애’의 비유로 해석하였다.⁶⁾ 그런데 여기서 장애는 대단히 광의로 쓰여 하나의 비유다.

삼설기본 <노처녀가>에서 주인공의 신체적 장애를 단순 비유로 볼 것인가? 단순 비유로 본 논문으로는, 노처녀가 가진 장애의 의미에 천착한 정미숙의 논문이 대표적이다.⁷⁾ 이것은 <심청전>에서 심봉사의 장애를 심청의 효를 부각시키기 위한 비유로 보는 것과 같다.⁸⁾ 심청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심봉사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적인

2) 선행연구의 대강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박상영, 『<노처녀가> 이본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한민족어문학』 73, 한민족어문학회, 2016, 401면.)

3) 신희경, 『삼설기(三說記)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306면.

4) 가사와 소설 중간에 있는 <노처자전이라>는 좀 다르다. 주인공이 불구가 아니라 점에서 잡가본 <노처녀가>를 닮았지만, 혼인으로 결말을 짓는다는 점에서는 삼설기본 <노처녀가>를 닮았다. 탁원정, 『<노처자전이라>에 나타난 ‘늙은 여자’의 성』, 『이화어문논집』 50, 이화어문학회, 2020.

5) 이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용찬, 『<노처녀가>에 나타난 여성성의 목소리와 그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49,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6) 정미숙, 『삼설기』 <노처녀가>에 나타난 장애 인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52,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59~80면.

7) 위의 논문, 59~80면.

8) 이경하,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39~58면.

것 같은 심청의 효도 달리 해석된다.⁹⁾ 삼설기본 <노처녀가>에서 비유가 아닌 장애에 초점을 맞춘 사례를 찾자면, 본격적인 <노처녀가>와 장애 연구는 아니어서 <노처녀가>와 장애 연구자들이 잘 주목하지 않지만, 이를 달리 해석하고 그 의의를 인정한 선례가 있었다.

○ 이런 시선은, 비록 흔한 것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널리 알려져 있는 가사인 <노처녀가>에서 그 소중한 실례를 발견할 수 있다. … 전근대 시기의 문학 텍스트 가운데, 비장애인의 자기중심적 시선 때문에 장애인이 겪게 되는 고통의 심리과정을 이처럼 일상의 구체적 생활을 통해 꺾진하게 그려낸 작품도 달리는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¹⁰⁾

그런데 인용문에서 말한 “비장애인의 자기중심적 시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막연하게는 알지만,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그 차이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생각의 차이는 텍스트 해석의 차이를 낳는다.¹¹⁾ 이 작품이 장애인의 “일상의 구체적 생활을 통해 꺾진하게” 그렸다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장애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 글에서는 그것을 ‘비장애인 중심주의’¹²⁾라 부르고, 장애인들이 직접 쓴 『모든 몸은 평등하다』(2012)¹³⁾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삼

9) 이경하, 『심청의 효 및 장애 관념 비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3a, 175~202면.

10)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視線)』,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18~321면.

11) 세세한 것은 본문에서 논의한다. <노처녀가>의 선행연구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12) 비장애인 중심주의, 비장애 중심주의,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대동소이 하지만, 지칭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제하나는 『짐을 끄는 짐승들』을 인용하며 “비장애중심주의는 장애가 없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이며, 반대로 장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상정하는 가치관이자 이데올로기”라고 명명했다.(제하나, 『고전 서사 속 장애 담론의 비장애 중심성 탐색』, 『고소설연구』 56, 한국고소설학회, 2023, 244면, 각주 2번.)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만, 이 글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주의라고 명명한다. 장애가 장애인보다는 훨씬 광의다. 장애는 장애인에게만 국한해 쓰이지 않고 비장애인에게도(ex. 공황 장애) 광범위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보다 물질적 사람을 가리키는 ‘장애인’을 쓴다. 사실 『짐을 끄는 짐승들』의 번역자도 ableism을 비장애인 중심주의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지향이 인간 중심을 벗자는 취지여서 비장애 중심주의로 번역했다고 한다(수나우라 테일러 지음. 이마즈 유리 옮김.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봄, 2020, 40면).

설기본 <노처녀가>를 다시 보려 한다. 두 텍스트는 19세기와 20세기 말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크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조선 후기의 차이를 염려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삼설기본 <노처녀가> 시대가 비장애인 중심주의는 더할 것이다.¹⁴⁾ 장애인들은 “치료되어야 하는 것은 비장애 중심주의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¹⁵⁾라고 말한다. 이 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에 더욱 민감해지려는 노력이며, 동시에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II. <모든 몸은 평등하다>에 나타난 비장애인 중심주의

『모든 몸은 평등하다』는 2012년에 출간되었다. 한국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생존한 5명의 장애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해 쓴 글이다. 후천적 장애인과 선천적 장애인이 섞여 있고, 장애의 종류도 다 다르다. 장애여성으로 겪은 과거의 고통과 현재에 대한 진솔한 기록인데, 이 장에서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비장애인 중심주의와 그 폐해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가능한 장애인들의 ‘다른 목소리’¹⁶⁾에 귀 기울여 보려는 노력이다.

비장애인 중심주의는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다. 비장애인은 대개 장애인과 몸의 조건이 달라 많은 것의 기준도 변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기의 기준으로 막연히 추측하고 ‘알아서’ 해선 안 된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 나쁠 수 있다. 물론 몸의 조건은 장애인마다도 다르다. 모두가 다름에 예민해져야 한다. 그곳에서 흑인, 노동자, 여성, 해외 이주민, 장애인의 진정한 인권이 시작한다.

몸의 차이는 크고 작게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

13) 김효진 외 지음, 『모든 몸은 평등하다』, 삶이보이는창, 2012, 1~236면.

14) 조선은 장애인 차별이 오히려 적었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이경하, 『문화 연구로서의 장애사와 전통시대에 대한 환상[서평] 정창권(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15쪽 등 ‘장애인 5부작’, 『인문논총』 80-4, 2023b, 265~279면.)

15) 김은정 지음, 강진경·강진영 옮김,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26면.

16) 『침묵에서 말하기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해야 한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캐롤 길리건 저, 이경미 역, 『침묵에서 말하기로』, 푸른숲, 2020, 12면.)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폭로해 유명해진 책이다.

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다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실패한 사례다. 비장애인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있을 뿐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네가 뭘 아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만 관철하려 드는 것과 같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도 권력관계는 존재한다.

○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힘들다. ... 잠깐이라면 차라리 서 있는 쪽을 택한다. 그런데 목발을 짚은 내가 서 있으면 옆 사람들이 몹시 불편해한다. 서 있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해도 내 몸의 조건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잘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해하는 것이다.(15)¹⁷⁾

○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사람들은 창피해서 사양하는 줄 알고 도움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의 손길을 억지 춘향이 되어 받아들이는 위치에 놓일 때마다 곤혹스럽다.(22)

장애인에 대한 동정이건 뭐건, 남을 돕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장애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장애인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휠체어나 목발의 운용 방식이 있다. 그리고 대개 자기만의 낙법을 개발해서 위기에 대처한다.¹⁸⁾ 빠른 대처가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훨씬 크다.¹⁹⁾ 위험해 보이는 상황마저 그렇다. 정작 장애인은 태평한데, 비장애인의 눈에는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뺐으면, 장애인은 깜짝 놀랄 뿐 아니라 더 위험하다.²⁰⁾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장애인에게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비장애인 눈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누군가 도와주려 할 때 장애인은 솔직하게 답하고, 비장애인은 그 답을 사양이라 여기지 말고 장애인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한다. 장애인을 어린

17) 2장에서 앞으로 제시된 인용문 마지막의 숫자는 『모든 몸은 평등하다』의 페이지를 가리킨다.

18) 김효진 외, 앞의 책, 21면.

19) 이경하(2023a), 앞의 논문, 185면.

20) 이상호 외, 『생활심리학개론』(제3판), 에듀팩토리, 2018, 109면.

아기나 치매 노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도와주려는 사람은 대개 비장애인 성인이다. 선의로 한 일임을 알기에 장애인은 ‘억지 춘향’ 역할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결국 비장애인의 마음만 편하게 할 뿐이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를 경험이 아니라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²¹⁾라는 말처럼,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대부분은 장애인의 실체를 모르고 막연한 상을 갖고 있을 뿐이다.

○ 공익광고에서도 장애인들은 모두 웃고 있다.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장애인의 밝은 웃음을 보면 세상이 장애인에게도 평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장애인들의 현실에 눈감는 동시에, 장애인에게 웃음을 선사한 비장애인들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믿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심술궂은 음모론을 풀어보는 건, 물론 내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120~121)

○ 상처가 아픈 것보다 주위 사람들이 불쌍하게 볼까 봐 그게 더 신경이 쓰였다.(175)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의 막연한 이미지는 크게 웃거나 많이 우울해 한다. 그 이미지 속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더 환하게 웃거나, 비장애인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다. 뜨개질하는 시각 장애인의 사진²²⁾은 21세기에도 비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낯설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뜨개질과 장기²³⁾ 등은 시각 장애인의 흔한 일상 중 하나일 뿐이다. 19세기 조선이나 21세기 한국이나 비장애인 중심 사회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이 절감하는 것 중 하나가 속도의 차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비장애인 중에도 어린아

21) 김효진 외, 앞의 책, 42면.

22) 위의 책, 43면.

23) 이규경의 <명통시변증설>에서 시각 장애인이 장기를 두며 노는 모습을 본 이규경이 신기해하며 기록한 부분이 나온다. 3장 참조.

이나 노인의 속도가 많이 느림을 생각하면, 비장애인 중심주의는 엄격히 말해서 비장애인 중·장년 중심주의인 셈이다.²⁴⁾

○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가 되어버렸다. 본질적으로 다른 속도로 사는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도 짙은 피로감에 시달린다.(73)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수련법을 따라가지 못해 좌절했으며, 애당초 비장애인 기준에 맞추려 한 것이 어리석었음을 고백한다.²⁵⁾ 비장애인 중·장년의 속도가 이른바 표준인 세상에서, 비장애인 어린아이나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이 뒤처짐은 물론이다. 속도의 차이는 능력의 기준 차이이다. 이에 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각 차이기도 하다.

○ 솔직히 능력이 안 돼서 못했기보다 동정 어린 시선을 받기 싫어서, 혹은 못 견뎌 포기한 일이 많았다. 특히 비장애인들 속에 있을 때 그렇다. 모임에 참석할 때는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노력했다. 땀을 뻘뻘 흘리거나 얼굴이 벌개진 모습으로 들어가 시선을 집중시키기 싫었기 때문이다.(199)

○ 그래도 난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었으며 간병인도 필요 없었고 휠체어에서 침대로 혼자 이동할 수도 있었다. 많은 기능들을 회복한 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에는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다.(145)

앞의 인용문의 장애인은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서 못 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만 “동정 어린 시선을 받기 싫어서”, “시선을 집중시키기 싫”어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다. 뒤의 인용문의 장애인은 일상생활의 기능을 중시한다. 그것이면 족하다고 했다.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 때로는 묶여 있는 기

24) 흔히 노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 즉 그들에게 별다른 역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25)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수련법 중 내가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 ... 비장애인 기준에 맞춰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긍정하는 것과 거리가 있음을 너무 늦게 알았다.”(김효진 외, 앞의 책, 18·25면.)

분이 들 때가 있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조종해서 움직이는 느낌”²⁶⁾인데, 이 장애인은 혼자 휠체어를 탈 수 있고, 휠체어에서 침대로 스스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 되었다고 했다. 침대로, 혹은 화장실로, 어딘가로의 이동을 위해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면, 누군가의 막대한 짐이라고 느끼면, 장애인의 자존감은 더욱 바닥을 칠 것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능력을 중시함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것 같다. 그래서 장애인은 이렇게 말한다. “내 장애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 나와 내 휠체어는 억울하다.”²⁷⁾

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족쇄인 동시에 다리다.²⁸⁾ 비장애인이 휠체어가 족쇄임을 강조한다면, 장애인은 휠체어가 다리임을 강조한다고 할까?²⁹⁾ 능력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각 차이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시각 장애인이 일상에서 뜨개질을 할 뿐 아니라, 현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바이스키’와 ‘좌식배구’, ‘핸드브레이크 자동차 운전, 춤, 등산과 여행이 다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무리 나름의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은 소외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 집 밖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 ... 특별한 날에나 나갈 수 있던 당시,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다. ... 아직도 아버지의 물음이 기억난다. “너도 나갈 거야?” 라니. ‘같이 나가자’ 혹은 ‘같이 갈 거지’도 아닌 ‘나갈 거야?’ 그 짧은 물음은 ‘날도 추운데 나 허리도 안 좋다. 그런데 너까지 데리고 나가기엔 힘이 드는데 꼭 나가야겠니? 그냥 집에 있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와 같은 의미였다. ...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느낀 박탈감이 가장 컸던 순간이었다. 박탈감이라기보다는 ‘거부당함’이 맞겠다.(147)

26) 김효진 외, 위의 책, 73면.

27) 김효진 외, 위의 책, 112면.

28) 김효진 외, 위의 책, 81~82면.

29) 이런 대목도 있다. “특히 몇 번 짧은 일정으로 외국에 갔을 때 그랬다. 외국에 가면 종종 목발을 짚은 몸에서 휠체어를 탄 몸으로 변신한다. 한국에서는 시간, 교통수단, 도로 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가에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김효진 외, 위의 책, 202면.)

민었던 가족에게 느낀 소외감은 장애인에게 더 아프다. 인용문의 저자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차 식구들 모임에서 소외되는 것에 더 이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적응한 것이다. 장애인은 그렇게 ‘자발적 소외’와 포기를 배운다. 이런저런 이유로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특별 대우하기 쉬운데, 그것이 장애인의 소외를 부추긴다.

○ 담임선생님에 따라 학교생활은 즐겁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 2학년 때 선생님은 몸이 불편하다고 특별 취급을 하지 않았다. 잘하면 똑같이 상을 주고 못하면 똑같이 맞거나 벌을 썼다. 그런 방식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했는지 모른다.(65)

모든 선생님이 인용문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지 못하는 체육 시간에 “마치 큰 선심을 베풀 듯”³⁰⁾ 장애인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관을 지시한다. 위 인용문의 선생님이 예외에 속한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태도³¹⁾는 장애인에게 큰 힘이 된다. 그가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덜어 준다.

“과잉 친절에서 느껴지는 그 인위적 관심은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³²⁾던 것처럼,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의 과잉 친절이 오히려 불편하다.³³⁾ 그래서 비장애인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서 편해서 ‘자발적 소외’를 택하기도 한다. 그러고는 남몰래 비장애인의 삶을 동경한다.

○ 장애를 수용했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상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난 장애인이 아니었다고, 당신들과 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몸의 조건이 다른데 아닌 척하면서 여전히 비장애인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150~152)

위 인용문의 저자는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된 후천적 장애인이다. 달라

30) 김효진 외, 위의 책, 175면.

31) “상대방의 아무렇지 않은 반응”(김효진 외, 위의 책, 188면)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구절이 있다.

32) 김효진 외, 위의 책, 142면.

33) 김효진 외, 위의 책, 18면.

진 몸의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비장애인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한다. 그도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자연스레 익힌 온갖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은 모두 다르다. 지구상의 비장애인이 그 수만큼이나 다르듯, 장애인도 지구상의 그 수만큼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애의 다양성을 종종 잊는다. 비장애인만 그런 것은 아니다. 장애인도 그런 경향이 있다.³⁴⁾ 다들 자기 경험에 갇혀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 “나와 다른 장애가 있는 몸에 대해 거의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듯 착각하고 있다가 한 번씩 뒤통수를 얻어맞는 경험.”³⁵⁾이 있다고 말한다.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운동을 꾸준히 해 온 김도현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한자리에 있으면서 의사소통이 난감했던 경험. 자신은 수어 혹은 지화 혹은 필담 혹은 노트북 타자, 음성 언어로 양쪽과 의사소통할 수 있었지만,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할까?³⁶⁾ 김도현은 “많은 경우에 장애인 내부의 차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차이보다도 크다”³⁷⁾고 말한다. 에스컬레이터가 비장애인과 목발 이용 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이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장애인 화장실이라지만, 정작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쓰지 않는다.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의 표상이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인간을 분류”³⁸⁾해 장애인/비장애인이 있을 뿐, 장애인들의 다양성을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다.

○ 이곳저곳 경험하다 보니 비장애인이 중심인 곳에서 소수자로 산다는 게 상대적으로 참 괴로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늘 촉수를 세우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장애인들만 모이는 시설, 학교 등이 좋다

34)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차이를 이미 겪어서인지, 몸의 차이에 더 민감한 것 같다.

35) 김효진 외, 앞의 책, 44면.

36)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53면.

37)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테이, 2007, 50면.

38) 김도현, 위의 책, 51면.

는 것은 아니다. 분리된 삶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다. ... 장애인 집단 내부도 일반적인 사회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여러 차이로 인한 차별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장애라는 이름으로 묶기에 그 차이는 어쩌면 비장애인과 장애인보다 더 다양할지도 모른다.(184~185)

위 인용문의 저자는 장애인·비장애인 시설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다. 그의 결론은 장애인도 사람이어서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는, 우리가 ‘장애인’이란 하나의 범주 속에 자꾸 잊어버리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사실이다.

III.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노처녀가> 분석

1. 장애인의 희화화와 소외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노처녀가>가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데 대한 대항 시선, 혹은 “반성적 시선”³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노처녀의 외양 묘사 대목이다.

너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갖치 못홀소나
너 얼굴 엷다 마쇼 엷은 궁계 슬기 들고
너 얼굴 검다 마쇼 분칠하면 아니 훨가
훈 편 눈이 머러시나 훈 편 눈은 밝아 잇네
바늘귀를 능히 꿰니 보선불을 못바드며
귀먹다 느무러나 크게하면 아라듯고 텃동소리 능히 듯네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 혀여 무엇홀고
왼편 다리 병신이나 뒤간출닐 능히 호고
코구멍이 퍽퍽하나 너음시는 일슈 만네
넙시울이 푸르기는 연지빛홀 발나 보시
영덩뼈가 너르기는 희산 잘 홀 징본이오
가슴이 뒤얹기는 준 일 잘 홀 기골일시
턱 아리 거문 혹은 쉼어 보면 귀격이오

39) 박희병, 앞의 논문, 218면.

목이 비록 움쳐시나 만저 보면 업슬손가⁴⁰⁾

곰보와 애꾸눈, 난청, 못 쓰는 한 손과 다리, 뒤틀린 엉덩이와 가슴 등이 모두 웃기게 표현되어 있다. 비장애인 독자는 이 대목에서 웃을 수 있다. 그래서 <노처녀가>는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설기』에 실릴 만큼 인기가 많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그런 장애인도 웃을 수 있었을까?

인용문에 보이는 익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을 장애인의 희화화라고 하면, 이른바 ‘농담을 다큐로 받는’ 것일까? 박희병은 노처녀의 외양 묘사가 “과장되고 익살기가 섞인 표현”⁴¹⁾이라고 했지만, 그 익살기가 혹 장애인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곰보타령> 등에 보이는 “가학의 시선”과 다른가? “곰보의 엷은 얼굴을 희화화”⁴²⁾한 것과 <노처녀가>에서 주인공의 외양 묘사에 동원된 익살은 무엇이 다른가? 필자는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희화화는 대상의 특징을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⁴³⁾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 장애인들의 약점을 희화화하곤 한다. 몇 십 년 전까지도 개그맨들은 이를 종종 개그의 소재로 삼았다.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신체적 장애가 강조되는 전반부와 그렇지 않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초월적 세계관이 개입되지 않는 소설 시대의 주인공이라 희화화될 수 있었다.⁴⁴⁾ 박상영은 장애인 노처녀의 긍정적 자기 인식이 진지하지 않아 오히려 희화화되어 있다고 했다.⁴⁵⁾

손시은은 전반부에서도 “더 이상 노처녀는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모자라고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아니”⁴⁶⁾라고 했다. 그러나 삼설기 <노처

40) 김동욱 교수·역, 『노처녀가』, 『한국고전문학대계』 13, 민중서관, 1976. 앞으로 『노처녀가』의 원문 인용은 이를 토대로 한다. 다만, 띄어 읽기와 행간 나눔은 필자가 한 것이다.

41) 박희병, 앞의 논문, 319면.

42) 박희병, 위의 논문, 323면.

43) 손시은,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치유 텍스트적 접근』, 『한국언어문학』 105, 한국언어학회, 2018, 138면.

44) 신희경, 앞의 논문, 318면.

45) 박상영, 앞의 논문, 412면.

46) 손시은, 앞의 논문, 129면.

너>의 비장애인 독자가 ‘공감’한 것은 후반부에 노처녀의 혼인을 그린 대목부터다. 손시은은 독자가 노처녀의 응원군이 되었다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회화화의 대상에서 동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박상영도 꿈이나 모의 혼인 같은 노처녀의 적극성이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했지만,⁴⁷⁾ 독자가 특별히 장애인에게 ‘공감’해서가 아니라, 전반부는 웃겨서 봤고 후반부는 당시 인기 많던 영웅소설의 고진감래(苦盡甘來) 공식⁴⁸⁾ 때문에 봤다고 하는 편이 낫다. 여전히 독자는 비장애인이고 노처녀는 장애인일 뿐이다. 독자가 노처녀에게 공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모델이 된 이 노처녀가 실제로 복합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노처녀>의 주인공은 작자가 아는 장애인의 신체적 약점은 다 모아 놓은 형국이다. 곰보, 애꾸눈, 난청, 못 쓰는 한 손과 한 다리, 뒤틀린 엉덩이와 가슴 등. 물론 노처녀가 시집을 못 간 이유는 실제로 다양할 것이다. 장애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일 수도 있고, 양반이라면 삼년상을 연달아 치르느라 때를 놓쳤을 수도 있고, 너무 못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비장애인에게도 <노처녀> 군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특히 장애 여성이라면, 본인은 “부모님도 야속하고 친척들도 무정하다”고 느끼겠지만, 이 가사의 부모, 형제의 생각처럼 대개 혼인은 아예 포기다. 비장애인이건 장애인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곰보, 애꾸눈, 난청, 꼽추, 못 쓰는 팔과 다리 등은 비장애인이 주변에서 흔히 본 장애인의 모습이다.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 보통의 비장애인 눈에 떨 일은 거의 없다. “장독 소리 벗겨니여 뒤물그릇 훔 일 업고”라 했는데, 그릇 등의 용도를 착각함은 비장애인이 생각하기 쉬운 시각장애인의 형상이다.

하지만 그 모든 장애를 한 몸에 지닌 예는 많지 않다. 결국 장애인의 회화화는 재미를 위한 장애인의 도구화인 셈이다.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신체적 약점을 다 모아 놓은 장애인의 형상을, 흥행을 위한 재미와 대

47) 박상영, 앞의 논문, 416면.

48) 제하나의 표현을 빌자면 “고전의 서사적 전통이 강화하고 공모하는 비장애중심주의”의 확산이다.(제하나, 앞의 논문, 242면.)

중성 등을 위해 도구화한 것이다. 눈과 팔, 다리에 한 쪽만 장애가 있다고 설정한 것이나 정신적 장애인의 형상이 설정에서 빠진 것은 결말부 혼인을 위한 포석일 것이다.

희화화의 대상은 주변에서 고립되기 쉽다. 주변에서의 고립은 주변의 무관심과 대상의 소외로 이어진다. 장애인의 소외는 2장에서 잠깐 살피고 넘어갔지만, 사실 『모든 몸은 평등하다』에서 널리 확인된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의 소외는 정해진 수순이다.

노처녀가 “부모님도 야속하고 친척들도 무정하다”고 한 것은 비단 혼인에 대한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건 형제건 친척이건, 장애인인 자신의 혼인에 대한 무관심은 곧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다. 가족의 무관심과 노처녀의 소외가 일상적인 것이었음은, 후반부에서 노처녀의 혼사가 정해진 후, 노처녀가 그 기쁨을 “유일한 벗”⁴⁹⁾이었던 삽살개에게 귓속말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장애인 노처녀가 비장애인 가족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장애인 노처녀와 비장애인 부모는 한 집에 살 뿐 정서적 교감은 없다.

2.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

1의 인용문은 장애인과 능력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이 인용문에서 장애인 노처녀가 자신이 일상적 생활 능력이 있다고 여김,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일상에서 가능한 일들이지만 불구인 자신의 처지에서 본다면 일상성으로서의 능력은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수 있기에 중요하다”⁵⁰⁾라고 했고, “노처녀는 최소한의 일상적 생활이 가능한가 여부를 혼인 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⁵¹⁾라고 했다.

문제는 2장에서도 많이 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각의 차이이다. 장애인 노처녀는 본인이 아내, 며느리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다. 그

49) 손시은, 앞의 논문, 140면.

50) 신희경, 앞의 논문, 308면.

51) 손시은, 앞의 논문, 130면.

가 혼인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첫 번째 조건은 일상적인 생활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다. 즉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짐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자신이 남에게 과도한 짐이 되지는 않음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능력을 중시함은 2장에서도 보았다. 그리고 장애인 노처녀가 혼인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조건은 당대 부녀에게 요구되는 행실이다. “희산”도 잘할 수 있고 “효행록 열여전을” 익혔다고 했다.

반면 비장애인인 가족의 생각은 다르다. “젊고도 분혼” 장애인 노처녀의 관점에서 서술할 만큼, 그들의 생각이 직접 드러나진 않는다. 다만 비장애인 언니는 19세에 혼인했고 비장애인 여동생도 20세에 시집을 갔는데, 자신은 50세에 육박한데도 혼삿말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서술될 뿐이다. 그래서 장애인 노처녀의 혼인에 무관심해 보이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매과도 “야속하고 무정”할 뿐이다.

“니 본시 총명키로 무슨 노릇 못 할손야”라고 큰소리는 쳤지만, 몸의 차이에 기인한 속도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기억즈 나냐즈를 십 년 만의 찌쳐너니
효행록 열여전을 무슈이 숙독흐미

한글을 깨치는 데 십 년이 걸렸다면 자랑할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19세기 여성이 문자를 익히는 일에만 전념하지 않았을 테고, 장애여성이라면 ‘그건 해서 뭇에 쓰냐?’라는 말도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애꾸눈이고 점자도 없던 시절이니, 비장애인보다 속도가 느릴 것은 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속도의 차이는 2장에서도 봤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장애인 노처녀는 느려도 결국 해냈으니 됐지 않나 여기는데, 비장애인은 너무 느리다고 타박하기 쉽다.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한다. 몸의 차이에 둔감하고, 장애인이 기준이다. 이성과 언어 능력의 강조는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특징으로 지적된 바 있다.⁵²⁾

52) 수나우라 테일러, 앞의 책, 239면. 저자는 이 책 곳곳에서 비장애인 중심주의에서 이성과 언어가 누린 특권을 분석했다.

현실에서 자주 좌절하는 장애인 노처녀는 현실과 다른 꿈을 꾸다. 꿈속에서 그는 동갑인 김도령과 혼인한다. “<노처녀가>에서의 꿈은 일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환상적 장치”⁵³⁾라고 하지만, 개 짖는 소리에 놀라 꿈에서 깬 장애인 노처녀는 더욱 현실을 자각하고 비참하다. 장애인 노처녀가 종종 자기비하와 자기연민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⁵⁴⁾ 장애인은 흔히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기준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글로, 19세기 문인 조수삼의 『추재기이』에 실린 <도행녀(倒行女)>란 글이 있다. 이는 <노처녀가>의 “바늘귀를 능히 꿰니 보선볼을 못바드며”란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모델은 하층 장애 여성이고, 혼인 여부는 미상이다.

○ 한 여자가 있는데 손가락이 모두 달라붙어 물건을 잡지 못했다. 반면에 발가락은 가늘고 길어 바느질하거나 절구질하고 다듬이질할 때 편리하였다. 걸어야 할 때는 손바닥을 짚신에 넣어 거꾸로 세워서 비틀비틀 길을 걸었다. 밤이면 심지를 돌우고 샅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꾸려갔다.⁵⁵⁾

이 장애여성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기형인데, 걷기는 물론 바느질, 절구질, 다듬이질, 샅바느질을 다 한다. 가늘고 긴 발가락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제목에 ‘도행’은 ‘거꾸로 다닌다’라는 뜻이다. 손바닥을 짚신에 넣어, 손으로 걸어 다닌 것이다. 남이 보기에는 아슬아슬하겠지만, 본인은 그러한 자세에 적응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수한 실패와 좌절이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장애인이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몸에 적응해 살아가는 사례다.

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려 있는 <명동시변증설>을 보면, 시각장애인의 뛰어난 감각에 놀라는 서술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그들의 경

53) 신희경, 앞의 논문, 310면.

54) 스스로를 가족에게 짐일 뿐이라 여기는 장애인이라면 “죽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김효진 외, 앞의 책, 176면.)

55) 조수삼 지음, 안대회 옮김, 『추재기이』, 서울 : 한겨레, 2010, 237면.

힘을 모르니,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다.

○ 대체로 맹인들은 …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만 보고도 곱고 미운 것을 알며, 조그마한 칼을 손에 쥐고 종이를 잘라 인형을 조각하는 데도 오체가 온전하여 한 치수도 틀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부싷물을 치고 담배를 썰거나, 투전【마작의 일종】⁵⁶⁾, 골패, 쌍륙, 장기 등의 놀이에도 일반인과 다를 것 없이 잘한다.⁵⁷⁾

부싷물을 친다는 것은 불을 사용하는 것이고, 담배를 썬다는 것은 작두 같은 날카로운 것을 사용하는 행위다. 비장애인의 눈에 그것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듯, 몇 번 실수 하다 보면 장애인도 요령이 생겨 비장애인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⁵⁸⁾ 위 인용문에 이어, 이규경은 시각장애인 중 뛰어난 예술가의 예를 많이 들었다.

비장애인은 종종 장애인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여긴다. 물론 외상에서 꿈쩍 못 하는 장애인은 일거수일투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이 장애인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2장에서도 지적했듯이, 흔히 사람들은 지금도 장애인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종종 잇는다.

3. 결말에서 드러나는 장애인의 극복 서사

종종 “장애의 극복”을 말하는데,⁵⁹⁾ 이는 어불성설이다. 장애는 장애인에게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이라고 한다.⁶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⁶¹⁾ 여기서 장애란 노력한다고 달

56) 【 𠵼 】는 이규경 자신의 주석이다.

57) “大抵盲者, (...) 至於生子女, 手撫而知其妍媸, 手執小刀刻紙人, 五體俱全, 不失尺寸, 擊火刀剉煙草, 投箸, 【紙牌之名】 骨牌、雙陸、象棋, 無異平人.”(한국고전종합DB, 『五洲衍文長箋散稿』, <明通寺辨證說>)

58)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생각하는 재활과 자립의 차이도 생긴다. 장애인의 자립에 관해서는 이경하(2022), 앞의 논문.

59) 심지어 손시은은 논문 한 절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손시은, 앞의 논문, 133~141면.)

60) 김효진 외, 앞의 책, 76면.

61)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라고 타박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다는데 다들 왜 이러지. 고정된 것을 붙잡고 몇 발자국 걷는 것은 괜찮았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기구들을 잡고 운동을 하라니, 다칠 것 같았다.”(위의 책, 144면.)

라질 수 없음, 즉 영구적 장애를 뜻한다. 영구적 장애와 일시적 장애가 같을 수 없다. 당대 의학의 수준에서 고칠 수 없다면 영구적 장애다. 삼설기본 <노처녀가>에서 노처녀가 나이 50이 가깝도록 혼인하지 못한 것은 그의 장애가 영구적 장애로 간주되었음을 뜻한다. 이른바 감동 실화인, 장애인에게 주입되는 ‘극복 서사’ 역시 비장애인 중심주의적 발상이다.⁶²⁾

물론 사회적 장애는 사회와 국가가 나서면 장애인의 생활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는 있다. 그렇다고 장애는 곧 사회적 장애라고만 할 수 없다.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즉 의료적 장애 모델과 사회적 장애 모델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요즘의 견해다.⁶³⁾ 19세기에는 당연히 의료적 장애 모델이 사람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기는 현재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긴 하다.

손시은을 비롯해, 삼설기본 <노처녀가>에서 이른바 “장애의 극복”을 장애인 노처녀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19세기에는 당연히 많았고, 장애 전문가가 아니라면 21세기에도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도 의료적 장애 모델의 폐해다. 삼설기본 <노처녀가>에서 장애인 노처녀가 개인적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음은 결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혼례식 과정에서는 노처녀의 갖은 신체적 장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혼례식의 가상현실은 노처녀의 “장애가 있는 그의 실제 몸을 은폐한다.”⁶⁴⁾ 꿈속에서 혼인하는 노처녀는 더 이상 장애인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혼례식장에서 부끄러워하는 한 비장애인 처녀일 뿐이다. 전반부에서 희화화된 장애인 노처녀의 곱보, 애꾸눈, 뒤집어진 가슴, 못 쓰는 한쪽 팔과 다리 등이 노처녀의 말대로 화장과 옷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문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꿈에서 갓 노처녀는 아쉬운 마음에 흥두께에 갓 씌우고 옷을 입혀 모의 혼례를 치른다. 그리고 장애인 노처녀는 “지성이면 감천”으로 시집을 간다. 혼례식 장면은 앞서 꿈을 통해 이미 길게 서술된 탓인지, 결말에서 또다시

62) 수나우라 테일러, 앞의 책, 40면.

63) 윤상용 외, 『장애인복지론』, 2판(초판 2016), 신정, 2019, 22~29면.

64) 김은정, 앞의 책, 21면.

그러지진 않는다.

둘째, 혼인 후 노처녀의 신체적 장애가 사라졌다는 대목이 있다.⁶⁵⁾ 영구적 장애가 혼인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심청전>의 결말에서 심봉사가 눈을 번쩍 뜨고, <홍부전>의 홍부 형제가 받은 박씨에서 무엇이 나왔는가를 생각하면, 삼설기본 <노처녀가>가 유행하던 19세기의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혼인을 하니 귀가 밝아지고 팔의 기능도 이른바 ‘정상’이 되었다. 게다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다. “병신 팔을 능히 쓰”는 것이 장애인들이 흔히 겪는 반복과 적응의 결과인지, 장애의 영구 치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체 문맥상 혼인이 노처녀의 신체적 장애를 없앴다고 봄이 옳다. 장애인인 비장애인이 보기에 불완전한 존재니, 혼인한 노처녀가 더 이상 장애인으로 그려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셋째,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나’의 장애를 해결한 데 그쳐 다른 장애인으로 문제의식이 확장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⁶⁶⁾ 앞서도 말했듯이, 장애의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만 다룬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개인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즉 장애는 장애인의 문제일 뿐, 비장애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 2장에서 지적했던 장애인 내부의 차이도 장애의 개인화로는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나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장애의 의료적, 개인적 접근이 지배하던 시대의 산물이니, 그러한 한계를 갖는 것이 당연했다.

요컨대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신체적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대중성과 공모한 한 편의 19세기형 ‘치유 드라마’⁶⁷⁾이다. 그것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이기도 하다. 그 꿈은,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온 TV 드라마 <다리미 패밀리>를 볼 때, 21세기 10월 현재 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65) 그래서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비현실적 결말이 자주 지적된다. 그러나 <노처녀전이라>에는 혼인을 하되 그런 비현실적 결말은 나타나지 않아, ‘늙은 여자’의 성도 비현실적이지 않다. (탁원정, 앞의 논문, 9면.)

66) 서철원, 『온전하지 못한 몸과 마주하기』, 『국문학연구』 43, 국문학회, 2021, 51면.

67) 김은정, 앞의 책, 23면.

IV. 맺음말

본고는 장애인들이 쓴 『모든 몸은 평등하다』(2012)를 참고하여, 장애인의 관점에서 19세기 텍스트인 삼설기본 <노처녀가>를 다시 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둘은 시간적 간격이 크지만, 19세기 조선과 21세기 초 한국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란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머리말에서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장애인의 시각을 대변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론은 삼설기본 <노처녀가>는 노처녀⁶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세우고 그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낙관적인 캐릭터로 만든 공이 있지만, 작품 곳곳에 비장애인 중심주의가 스며있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장애인 노처녀는 “소재주의적 접근”⁶⁹⁾일 뿐, 삼설기본 <노처녀가>가 장애인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삼설기본 <노처녀가>에 흔히 부정적 시선과 긍정적 시선이 공존한다고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했는데, 그 혼재된 다른 시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지 집단과 개인, 타자 의식과 자아 각성, 중세와 근대 지향으로⁷⁰⁾ 대별하기 어렵다. 그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다. 장애인도 이런 고백을 한다.

○ 연애나 결혼에 대한 나의 태도 역시 이중적이라는 걸 깨닫는다.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귀찮아하기도 하며, 장애여성이라고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 감당해야 할 사회적 시선이나 불편함 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게 하기는 싫다. 성욕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장애가 있는 내 몸을 다 보이고 싶진 않다.⁷¹⁾

이 장애인도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일원이다. 그도 크고 작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비장애인 중심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현실의

68) 노처녀와 장애인은 19세기에 가족도 “부끄러워하는 존재”(고순희, 『<노처녀가 1> 연구, 『한국시가연구』 14, 한국시가학회, 2003, 176면.)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69) 고순희는 일찍이 잡기본 <노처녀가>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위의 논문, 186면.)

70) 박상영, 앞의 논문, 400면.

71) 김효진 외, 앞의 책, 119면.

몸으로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는 한편, 장애를 가진 몸의 치료를 소망하는 이중성을 갖는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사는 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 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은 21세기 한국이 19세기 조선보다는 장애에 대한 생각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의 장애인이 생각하는 비장애인 중심성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몸은 평등하다』를 가져왔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일 것이다. 그만큼 시간적 간격이 크다. 더구나 『모든 몸은 평등하다』는 수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비장애인 중심주의에 대한 장애인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듣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것은 장애인을 ‘위해’ 대신 말해주는 것과는 다르다. 3장의 분석도 모두 2장을 토대로 한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가 중요하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조선의 장애인에 관한 글쓰기의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원고를 기약한다.

그리고 이 글이 신체적 장애만 문제 삼았음은 또 하나의 뚜렷한 한계다. 이것은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만 갖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현대에도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손쉽게 무시됨을 생각할 때 필자도 반성하게 된다. 이도 역시 차후의 중요한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1. 자료

김동욱 교주·역, 『노처녀가』, 『한국고전문학대계』 13, 민중서관, 1976.
한국고전종합DB, 『오주연문장전산고』, <명통시변증설(明通寺辨證說)>.

2. 단행본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2007.
_____,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김은정 지음, 강진경·강진영 옮김,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2023 70쇄).
김효진 외 지음, 『모든 몸은 평등하다』, 삶이보이는창, 2012.
수나우라 테일러 지음. 이마즈 유리 옮김.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봄, 2020.
윤상용 외,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9.
이상호 외, 『재활심리학개론』(제3판), 에듀팩토리, 2018.
조수삼 지음, 안대회 옮김, 『추계기이』, 한겨레, 2010.
캐롤 길리건 저, 이경미 역, 『침묵에서 말하기로』, 푸른숲, 2020.
김 닐슨 지음, 김승섭 옮김, 『장애의 역사』, 동아시아, 2020.

3. 논문

고순희, 『<노처녀가 1> 연구』, 『한국시가연구』 14, 한국시가학회, 2003, 165~193면.
김용찬, 『<노처녀가>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와 그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49, 한국시가문화학회, 2022, 81~108면.
박상영, 『<노처녀가> 이본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한민족어문학』 73, 한민족어문학회, 2016, 399~435면.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면.
서철원, 『온전하지 못한 몸과 마주보기 - <도천수관음가>와 <처용가>의 질병, <노처녀가>의 장애, <텐동어미화전가>의 사고 -』, 『국문학연구』 43, 국문학회, 2021, 37~68면.
손시은,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치유 텍스트적 접근 -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감정적 유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5, 한국언어문학회, 2018, 121~146면.

- 신희경,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301~337면.
- 이경하,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 -영화 <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39~58면.
- _____, 『심청의 효 및 장애 관념 비판 : 동화 <청아, 청아, 눈을 떠라>(2006)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3a, 175~202면.
- _____, 『문화 연구로서의 장애사와 전통시대에 대한 환상 [서평] 정창권(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15쪽 등 ‘장애인 5부작’』, 『인문논총』 80-4, 2023b, 265~279면.
- 정미숙, 『『삼설기』 <노처녀가>에 나타난 장애 인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문화연구』 52,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59~80면.
-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 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3~287면.
- 제하나, 『고전 서사 속 장애 담론의 비장애중심성 탐색 : <한후통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6, 한국고소설학회, 2023, 241~280면.
-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5, 한국시가학회, 1999, 401~426면.
- 탁원정, 『『노처녀자전이라』에 나타난 ‘늙은 여자’의 성』, 『이화어문논집』 50, 이화어문학회, 2020, 5~28면.

Reviewal of *Samsseolgy* Version “Nocheonyeo-ga”
in Non-disabled Societies

Lee, Kyungh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19th century text, *Samsseolgy* version “Nocheonyeo-g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referring to *All Bodies are Equal* (2012) written by the disabled. The two have a large time gap, but Joseon in the 19th century and Korea in the early 21st century were not much different in that they were non-disabled-oriented societies. The analysis of *All bodies are equal* was intended to directly listen to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bout non-disabled centralism as a standa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amsseolgy* version “Nocheonyeo-ga” had a merit that not only old women but also disabled people were the main characters, but it was only a materialistic approach, and *Samsseolgy* version “Nocheonyeo-ga” failed to express the authenticity of disabled people. In other words, non-disabled centralism was permeated throughout the work, and it was seen that non-disabled centralism was strengthened in the ending that the caricature and alienation of the disabled, the prejudice of the non-disabled about the ability of the disabled, and the empathy of the non-disabled. In addition, as long as we live in a non-disabled society, not only non-disabled people but also disabled people can not completely escape from non-disabled centralism.

Keywords : *Samsseolgy* version “Nocheonyeo-ga”, the disabled, non-disabled centralism, caricature, ability, empathy

접수일자: 2024. 9. 30. 심사기간: 2024. 10. 1.~2024. 11. 10. 게재결정: 2024. 11. 10.
